

아랍에미리트 石油政策

1. 7개土候國으로 구성된 연방국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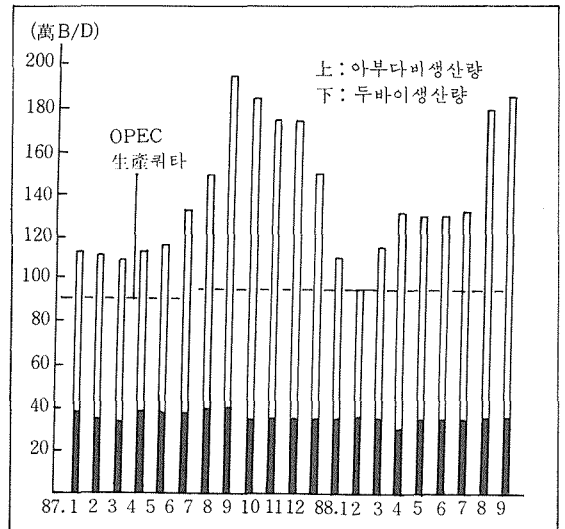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은 아부다비, 두바이, 샤르자, 라스 알 하이마, 아두만, 움브 알 카이와인, 프자이라 등 7개의 토후국으로 구성된 연방왕제국이다. 舊宗主國인 英國으로부터 독립한 것은 라스 알 하이마 이외의 6개土候國이 1971년 12월 2일 이었으며, 다음해인 1972년 2월에 라스 알 하이마가 이에 통합되었다.

각토후국마다 부족으로서의 독립의식이 매우 강하고, 독립후의 역사가 아직도 짧기 때문에 UAE의 연방국가로서의 권능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편이다. 또한 石油收入에 있어서도 1차적으로는 石油를 생산하고 있는 각토후국에 귀속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UAE에서는 각토후국이 제각기 독립적인 石油政策을 결정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UAE의 石油政策은 연방내에서 정치적, 原油확인매장량, 原油생산능력이 뛰어난 아부다비의 石油政策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각토후국별 原油생산상황에 있어서 통계가 알려지고 있는 것은 아부다비, 두바이, 샤르자 등 3개국이다. 原油생산량은 샤르자가 5,000b/d, 두바이가 35만b/d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아부다비는 60만 b/d에서 150만b/d까지 광범위한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UAE의 原油생산량은 아부다비의 생산동향에 따라 증감하고 있다.

그래서 두바이의 石油政策에 대해 먼저 간략하게 언급한 다음에, UAE 원유생산의 열쇠를 쥐고 있는 아부다비의 石油政策에 대해 상세히 소개하기로 한다.

아랍에미리트의 原油生産量 추이



註: 1) 1988년 9월은 추정치
 2) 이밖에 샤르자에서 5,000b/d의 原油생산이 있으나 여기서는 생략함.
 <資料> PMI 各號에 의해 작성

2. 두바이의 石油政策

두바이는 1966년의 石油발견 이전부터 중계무역등에 의해 「페르시아灣의 싱가포르」로서 경제적 발전을 이룩해 왔다. 민간자본의 축적도 순조로워 경제개발의 기본은 민간자본의 활용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현재 UAE의 상업 및 무역중심지로서의 위치가 굳어지고 있다.

1988년1월1일 현재의 原油확인매장량은 OGJ誌에 의하면, 40억배럴이고 가채년수는 약 29년으로 상당히 단축되고 있다. 두바이에 있어서 原油는 외화를 벌어들이는 중요한 존재이기는 하지만 전적으로 石油에만 의존할 수는 없는 형편이다.

그래서 두바이는 상업 및 무역에 의한 경제입국을 표방하고 있으며 石油收入은 민간자본이 커버할 수 없는 정부레벨의 대규모 프로젝트에 충당되고 있는 모양이다. 이 때문에 두바이의 石油政策에는 장기적인 관점은 별로 고려되지 않고 있어서, 石油가 나올때는 계속 생산해서 판매한다는 자세가 엿보이는 것 같다. 두바이의 실제 原油생산량은 거의 최대능력으로 알려진 35만 b/d 정도로 추이하고 있으며, OPEC의 합의나 방침 등에는 별로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 게다가 全量이 스파트 시장에 방출되고 있어서 油價상승이나 하락시에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두바이原油의 스파트價格은 美國의 WTI, 英國의 브렌트와 더불어 世界 3大 指標油種으로서 中東지역의 油價동향을 리드하고 있어서, 겨우 35만b/d의 두바이原油에 自國의 油價가 좌우되고 있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中東제국도 많다는 것이다. OPEC 내부에서도 各國들이 UAE=아부다비라고 간주하고 있으며, 두바이 자신도 OPEC의 회원이라는 인식은 희박하다.

3. 아부다비의 石油政策

(1) 石油개발의 연혁

아부다비에서의 石油개발은 ADNOC(아부다비國營石油會社)가 담당하고 있는데, 그 연혁은 다음과 같다.

陸上石油開發은, Trucial Coast Development Oil社에 이권을 부여한 1936년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된다. 1962년에 ADPC로 개편한 同社는 1960년 머반油田을 비롯, 1965년 아사브油田, 1970년 사히르油田등 차례로 상업베이스의 유전을 발견하였다.

그後 國內에서 조업하는 外資石油會社에 자본참여하는 방침을 결정한 아부다비는 1971년에 국영회사 ADNOC를 설립, ADPC에 대해 1973년1월부터 25%, 1974년 1월부터는 60%의 자본참여를 하게 되었다. 또한 1978년10월에는 ADCO를 설립, 1979년2월부터 ADPC의 석유사업을 이어받아 今일에 이르고 있다.

海上石油開發은, ADMA가 이권을 획득하여 자콤, 움프, 샤리프油田 등에서 조업하고 있으며, ADMA에는 현재 ADNOC가 60%의 자본참여를 하고 있다. 그밖에 ADNOC산하에는 ZADCO 및 UDECO가, ADMA 산하에는 OPCO가 탐사·개발회사로서 설립되어 있다. 1986년5월에는 이들 3社의 굴착부문이 통합되었는데, 이는 조업코스트의 합리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아부다비의 石油政策의 일환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2) 石油行政의 개편

합리화를 추진해온 아부다비는 지난해 6월5일에 전면적인 石油행정기구의 개편을 단행한 바 있다. 石油政策 결정 및 石油業務管理의 주체를 통일하기 위해 아부다비土候國石油省 및 ADNOC 임원회를 폐지하고 사우디아라비아 등에서 볼 수 있는 SPC(最高石油評議會)를 새로 설치한 것이다. SPC는 업무전반에 걸쳐 재무 및 행정적 자립성을 구비하고 있으며, 개편결과 아부다비土候國, 나아가서는 UAE의 石油行政 최고기관이 되었다.

SPC의 人的構成을 보면, 아부다비土候國行政評議會議長을 겸임하는 하리파王子를 의장으로 하여 총 12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사무국장에는 ADNOC 총지배인에 신규취임한 마즈루위氏가 겸임하고 있다. 舊 ADNOC 任員會議長이었던 타프누운氏 및 前아부다비 石油相 오타이바氏도 일반회원으로써 SPC에 참여하고 있다.

오타이바氏는 UAE 石油相으로서의 지위는 변함이 없으나, 실제 직무권한은 UAE의 石油政策擔當者라고 하기 보다는, UAE의 OPEC 특명대사 및 石油關係 대변인격인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겠다. 現在는 마즈루위 SPC사무국장이 ADNOC 총지배인이라는 지위로 봐서도 UAE의 石油關係 최고행정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 增産問題

지난해 6월의 第83次 OPEC 정기총회에서는 1988년 상반기의 總生産上限(이라크제외) 1,506萬b/d와 국별쿼터를 하반기에도 계속 적용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UAE는 자주생산상한 150만b/d를 일방적으로 선언하고 8월부터는 이를 초과하는 180만b/d까지 증산하였다. 오타이바 石油相의 성명에 의해 비롯된 이 쿼타증대 요구선언은 그후 각료평의회가 공식적으로 지지하여 UAE 정부의 공식선언이 되었던 것이다. 8월에 수브르토 OPEC 사무국장의 방문을 받은 자이드 대통령은 OPEC에 대한 협력을 「개인적」으로 약속은 했으나, 생산쿼타에 대해서는 개별문제라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오타이바 石油相은 150萬b/d의 생산상한이 정당하다는 근거로서, UAE의 原油확인매장량은 970億배럴로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세계 2위인데, 國別쿼타 94.8만b/d는 정당한 세어가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고 또한 1983년3월의 第67次 임시총회(런던會議로서 유명함)에서 120만b/d로 결정된 UAE의 생산상한(사실은 110萬b/d로, 오타이바 石油相의 잘못된 듯)은 잠정적인 것으로, 3개월 이내에 150萬b/d로 증대하겠다는 사우디아라비아와의 밀약이 있었음을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사우디아라비아와는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는데 실제상황은 어땠는지 검토해 보겠다.

런던會議에서는 OPEC 창설이래 최초로 原油 기준가격을 배럴당 5달러 인하하여 배럴당 29달러로 결정하고, 1983년말까지의 OPEC 총생산상한을 1,750만b/d로 억제하였다. 1,750만b/d의 총상한은 쉽게 결정되었으나 國別쿼타의 결정은 난항을 보였는데, 특히 제정위기에 처한 베네수엘라와 UAE에 대한 조정에 애를 먹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런데 中東專門誌 MEES('83.3.21 號)에는 「UAE는 자기들이 주장해온 150만b/d대신 110만b/d를 받아들이는 대신, 1983년 4/4분기에 생산상한 상향수정을 실시시에는 타회원국에 우선된다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UAE에 대한 우선권이 스윙프로듀서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어떤 타협에 의해 이루어졌는지는 불명하다」는 기사가 실려 있었다.

그後 UAE 총회가 열릴때마다 쿼타증대를 계속 요구했다. 그러나 결국, 1984년10월의 第71次

임시총회에서 노르웨이의 油價인하 발표가 발단된 國際石油市場의 유가인하 압력에 대항하기 위해, 사우디아라비아의 강력한 이니셔티브下에 95만b/d에의 감축이 부득이 했던 것이다. 그리고 1986년12월의 第80次 총회에서는, 78次 총회에서 타결된 생산상한에서 이라크를 계속 제외하기 위해, 페르시아灣 국가의 일원으로서 1987년1~6월 90.2만b/d, 동년 7월이후 94.8만b/d에의 감축이 불가피 했으며, 지난해 11월의 84次 총회에서는 98.8만b/d로 다소 증대되었다.

이러한 상황으로 미루어 보아, 런던회의에서 UAE 와 사우디아라비아 간에는 어떤 밀약이 있기는 했으나, 油價인하압력에 대한 사우디아라비아의 감산태도, 그리고 이라크를 OPEC 생산상한에서 除外시킨 後 페르시아灣 아랍국가로서 이란 세력의 약화를 도모하는 사우디아라비아의 강경한 태도앞에, 표면적으로 약속의 이행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후 이란·이라크전쟁에서 이라크가 유리해지는 등 사우디아라비아에게 이행을 요구하는 기회가 나왔다고 판단했던 것 같다.

이란·이라크 휴전후에 이루어질 이라크의 쿼타복귀시, 國別쿼타를 재조정할 것으로 예상하고 사우디아라비아에게 약속이행을 촉구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4) 금후의 展望

1988년1월1일 현재 아부다비의 原油확인매장량은 약 922億배럴에 이르고 가채년수도 260년이상이나 된다. 또한 두바이에 비해 역사적으로 상업자본의 축적이 늦어지고 있는 아부다비의 경제개발은, 石油收入에 의한 정부주도의 대규모 프로젝트에 依存하고 있어서 石油 monoculture적인 경제체질로 되어 있다.

따라서, 아부다비의 중장기 石油政策은, 장기에 걸친 石油收入의 안정적 확보라고 볼 수 있는데, OPEC 內에서도 페르시아灣 아랍國의 일원으로서 사우디아라비아가 주도하는 온건파에 속하고 있기 때문에 向後에도 사우디아라비아를 적극적으로 로 지지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 <에너지>

UAE에서의 주요石油開發會社 활동상황

	權益保有者	主 要 油 田				원 유 명 (輸出港)	
		油 田 名	발견년도	가채매장량 (100萬bbl)	생 산 량 (1,000b/d)		
ADCO (Abu Dhabi Company for Onshore Oil Operations)	ADNOC	60.0 Bab	1958	3,500	(1985年) 422	Murban (Jebel Dhanna)	
	CFP	9.75 Buhasa	1962	8,000			
	BP	9.5 Asab	1965	4,000			
	Shell	9.5 Sahil	1970	500			
	Mobil	4.75 Shan	n. a	n. a			
	Exxon	4.5					
	Partex	2.0					
ADMA-OPCO (Abu Dhadi Marine Operating Company)	ADNOC	60.0 Umm Shaif	1958	5,300	122	Umm Shaif	
	BP	14.7 Lower Zakum	1964		57	Lower Zakum	
	CFP	13.3				(Das Island)	
	JODCO	12.0			18,400		
ZADCO (Zakum Development Company)	ADNOC	88.0 Upper zakum	1964		108	Upper Zakum	
	JODCO	12.0				(Zirk Island)	
UDECO (Umm Addalkh Devel- opment Co.)	ADNOC	88.0 Umm Addalkh	1969	100~150	9	同 上	
	JODCO	12.0 Sateh	1987				
		Delma	開發中止				200
		Jarnain					
ADOC (Abu Dhabi Oil Co.)	ADOC	100.0 Mubarraz	1969	1,500	17		
TBK (Total Abu Al Bukhoohs)	CFP	51.0 Abu Al Bukhoosh	1971	150~200	66	Abu Al Bukhoosh (Storage Tanker)	
	Charter Oil	24.5					
	Amerada Hess	12.25					
	Sunningdale & Kerr Mac	12.25					
BOC (Bundg Oil Company)	合同石油	33 1/3 El Bundg	1965	n. a	18	Lower Zakum (Das Island)	
	BP	33 1/3			그중절반은		
	CFP	33 1/3			카타르		

〈資料〉 中東經濟研究所

마음속에 불조심
행동속에 화재예방